

18세기 여성행장을 통해 본 여성서사의 특징*

이승희**

〈차 례〉

1. 서론
2. 구별문법과 혐오의 논리로 칭송받는 여성
3. 무표정한 여성의 감정노동
4.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서사의 의의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여성서사 중 행장류를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작자의 칭송 속에 가려진 여성 삶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서사는 남성에 의해 작성되었다. 때문에 여성서사에는 조선시대 남성작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남성작자는 행장의 대상이 된 여성은 일반 부녀자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조선시대 보편적인 여성혐오 인식이 드러난다. 여성혐오 인식은 여성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비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비하는 다시 남성이 칭송하는 대상이 된다.

한편 여성행장은 여성의 생애를 기록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여성의 개인적 감정에 대한 부분이다. 행장 속 여성은 무표정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남성작자의 의도적인 은폐로 볼 수 있다. 감정이 절제된 여성은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절제된 감정은 오히려 감정노동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가난한 살림을 책임지면서도 절대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신경 쓸까 걱정하고 남편을 위로한다. 남편의 첩에게도 절대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남성작자는 이러한 여성의 수고로움을 칭송할 뿐이다. 이 같은 칭송은 여성의 감정과 감정노동을 은폐한다.

행장은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칭송 받지만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더불어 남성의 칭송은 여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속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414)

** 인하대 프런티어학부대학 강사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주제어] 행장(行狀), 여성서사, 유교이데올로기, 구별, 여성혐오, 감정노동

1. 서론

본고는 18세기 여성서사¹⁾를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작자의 칭송 속에 가려진 여성 삶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에 여성이 가진 특수한 지위에 기인한다. 조선은 남녀유별과 부부유별을 건국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을 엄격히 했다. 이러한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의 기록의 비대칭에 기인한다. 조선시대 여성은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소유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여성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때는 여성 사후(死後)였다.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에서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와서야 「자기록」, 「규한록」과 같은 여성의 자기서사가 등장한다. “자기서사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제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²⁾이다. 이 정의를 따른다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을 반추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의 자기

1) 본고에서는 황수연 외,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8권(보고사, 2010)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인용문의 권수는 이 책의 권수를 뜻한다.

2) 박혜숙,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38쪽.

서사야말로 조선시대에 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자기서사가 나타나기 이전 여성의 삶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 여성서사는 대부분 여성 사후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남성 작자에 의한 여성서사는 제문, 묘비, 행장, 전(傳), 애사, 유사, 행록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행장(行狀)은 다른 글쓰기에 비해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된다.³⁾ 물론 행장이 여성 사후 남성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만큼 여성의 다양한 경험이나 솔직한 감정 등은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남성에 의한 여성행장을 여성서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 여성행장은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시각이란 조선후기의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즉 그 시각과 인식 속에서 조선후기 여성의 삶이 규정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여성행장은 본격적인 여성의 자기서사가 등장하기 이전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한다.⁴⁾

여성행장은 남성작자에 의해 내용이 결정된다.⁵⁾ 남성작자는 여성의 일생을 재단(裁斷)하여 행장을 완성한다. 물론 행장에 한 여성의 일생을 모두 담

3) 행장(行狀)은 전(傳)과 함께 전장류(傳狀類)로 분류되는데 고인을 잘 알았던 사람이 고인의 행실과 업적을 기록한다. 행장은 시호를 제정하거나 사관이 입전(立傳)할 때, 다른 사람에게 비명, 묘지명 등을 부탁할 때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인의 세계(世系), 이름, 경력, 삶과 덕행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 김만중의 <先妣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8쪽) 또한 행장이 묘지명, 제문과 달리 의미있는 지점은 묘지명, 제문 등이 글쓴이의 슬픔, 글쓴이와 망자의 관계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중심이 되는 것에 비해 행장은 그것이 가지는 자세함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망자의 행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재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경하, 「亡室行狀類 연구」, 『한국문화』 40, 2007, 1~2쪽)

4) 여성행장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희숙은 17세기 여성행장을 통해서 양반여성이 가정과 가문 생활 속에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향후 탈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유용한 가치로 수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희숙, 「조선후기 兩班女性의 생활과 여성리더십」,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또, 조성윤과 김승호는 행장 속 여성들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보고 유교사회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했던 다양한 역할들은 조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조성윤·김승호, 「여성을 주체적으로 회상한 행장의 애도 내용 고찰」, 『동악어문학』 52, 동악어문학회, 2020)

5) 황윤정은, 여성행장은 분명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촘촘하게 걸러진 결과물이지만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고인에 대한 기록'이라는 장르적 관습으로 은폐함으로써 당시 여성독자로 하여금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윤정, 앞의 논문, 555쪽)

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재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단의 기준이 다분히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관점이라면 여성행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성작자가 보여주고 싶은 여성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성 서사로서 행장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바, 과장·미화와 같은 관습적 글쓰기 형식은 그것대로 이해하면서 기록의 행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 삶의 실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구별문법과 혐오의 논리로 칭송받는 여성

구별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가른다는 의미이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별은 성별에 따른 것이다. 일찍이 유교사상에서는 양과 음, 하늘과 땅을 구별하며 거기에 남성과 여성을 대입하여 인간세상을 이해했다. 음양과 천지가 그 모양과 위치,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과 여성이 품부받은 성품 및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다름을 의미했다. 『내훈』에서도 “음양은 성질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행실이 다르다. 양은 강건한 것을 덕으로 삼고, 음은 유순한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남자는 강한 것을 귀히 여기고, 여자는 약한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⁶⁾라고 했다. 여성들에게 유교경전보다 여성을 위한 교훈서가 널리 읽혔을 것을 감안하면 교훈서의 내용은 경전 못지않은 위상을 가졌을 것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사회에 적용하면서 거기에 우열을 통해 남성 우월적 문화, 즉 가부장사회를 구축하는 데에는 단순한 차별화 이상의 구별문법이 작동한다. 거다 러너는 서양문명의 역사를 통해 가부장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물론 동서양에는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거다 러너의 연구는 우리의

6) 陰陽, 殊性, 男女, 異行, 陽以剛爲德, 陰以柔爲用, 男以強爲貴, 女以弱爲美. (소혜왕후 한·송시열 『내훈·계녀서』, 명문당, 1986, 82쪽)

가부장제 역사와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거다 러너는 “성적 속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성별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여성이 임신한다는 사실은 여성의 성(sex) 때문이며, 여성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성별(gender) 즉 문화적 구성물 때문이다.”⁷⁾라고 했다. 거다 러너의 이 같은 말은 성과 성별의 구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구별되면서 하게 되는 많은 일이나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들이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사회가 만들어낸 젠더적 가치체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별 구별문법에 의해 작동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성차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조선 사회는 유교 윤리를 근간으로 성별 구별문법에 의해 가부장문화를 구축·유지한다. 앞서도 확인했듯 조선 사회의 성별 구별문법은 천지자연의 조화, 음양의 원리로 설명하지만 결국 여성은 유순하게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이로써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아래에 놓인다. 다시 말해서 성별 구별문법은 수직적으로 작동하면서 우열을 구별하는 논리로 이용된다.⁸⁾

행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여성은 유교적 윤리규범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남성작자는 이 여성이 일반 부녀자들과는 달랐다고 강조한다.⁹⁾ 남성작자의 이러한 구별문법은 행장의 대상이 된 여성을 일반 부녀자들보다 돋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일반 부녀자에게는 행장 속 여성을 본받도록 자극하게 만든다.

7) 거다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41쪽.

8) 김경미는 주대의 종법사회에 기초한 상하·존비·남녀의 차등적 인간 관계론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교는 가부장적인 논리 체계에 입각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家和 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2012, 172쪽.

9) 최기숙(2014, 35-36쪽)은 ‘세속부녀’와는 ‘다른’ 여성가족의 남다른 강조해 가문의 영예로움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 일반’에 대한 폄하의 맥락을 함축하며 남성작자가 ‘시속 부녀와 다르다’는 ‘차이의 인술’만으로 행장 여성을 재현한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의 삶을 깊이로부터 공감하며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아울러 남성의 구별문법 속에서 결국 여성 스스로 여성 정체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남성작자의 기술방법으로 보았다. 나아가 이것은 가문내 여성 독자들에게도 행장여성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자극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성작자의 구별문법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여성혐오¹⁰⁾ 논리가 숨어있다. 여성혐오는 대개 남성에 의해서 일어나며 여성의 여성혐오는 자기비하로 나타난다. 여성행장에서는 이러한 여성혐오와 자기비하가 동시에 나타난다. 즉 조선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여성이란 성 자체가 혐오와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이다.¹¹⁾ 조선시대의 많은 열녀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삼종지도(三從之道)’,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 ‘여필종부(女必從夫)’와 같은 표현은 조선시대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열녀전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죽음에 그 뒤를 따르려는 부인의 노력은 처절하다. 자결의 순간 가족에게 발각되어 살아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은 자결에 성공한 부인은 열녀가 된다. 이런 열녀가 조선시대 내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에는 여성혐오와 여성의 자기비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본다.

조선시대 여성은 환영받지 못한 성(性)이었다. 우에노 치즈코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자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 손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자는 얼마나 있을까.”¹²⁾라고 한다. 우에노 치즈코의 이와 같은 발언은

10) “여성 혐오는 성별이원제(性別二元制) 젠더 질서의 깊고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핵이다.”(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5, 12쪽) 여성혐오는 역사적으로 남성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5, 5~9쪽) 조선사회에서도 강력한 유교중심의 가부장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척·배제하려는 여성혐오의 논리가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구별문법에 의한 여성혐오는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다고 본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윤희봉사와 재산권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가 낮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였다. 그것은 사회 제도의 여러 변화에서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결혼 후 남귀여가(男歸女家)와 친정살이가 보편적이었던 것이 친영(親迎)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조선 건국과 함께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세종 7년에는 “나라의 풍속이 옛 습관에 벗어나 친영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2일 기사)”했다고 기록했다. 이로써 보건데 유교이념에 비롯한 사회 제도의 정착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친영제 정착은 결혼한 여성의 소속을 시가(媳家)로 귀속시키면서 친정에 대한 재산권과 재산권에서 여성을 제외시킨다.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아래에 놓이게 만들고 이는 곧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상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여성혐오가 배태된 바탕이 된다.

12)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13쪽.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 온 여성/남성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진실이다.

여성행장은 보통 남성작자가 친족 및 지인의 여성 가족구성원에 대해 여성으로서 바람직했던 삶을 기록하고 칭송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여성행장에 과연 여성혐오 논리가 작동하고 있을까. 유교적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이란 남성이 되지 못한 성에 다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행장을 통해 남성작자는 일반 부녀자와 가족 여성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여성혐오를 드러낸다.

⑤ 유인은 충효를 실천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품과 자질이 어질고 맑았으며 또 어진 부모의 가르침을 입어 어릴 때부터 몸가짐이 법도에 맞으니 처사공이 칭찬하여 이르길,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우리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조금 자라서는 『소학』과 여계서를 익혀 몸소 행하는 것이 많았다.(박운원, 「아내 행장」, 6권 323쪽)

⑥ 어릴 때부터 이미 단아하고 진중하며 정숙하고 한결같으니 비록 아이들과 같이 놀 때에도 일정한 법도가 있었고 어린 아이의 경박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 조금 성장해서 말은 간결하면서도 정당했고 일처리는 꼼꼼하고 적절했으며 용모와 행동에는 절로 존귀함이 있었으니 여러 어른들이 모두 특별히 사랑하고 여자로 여기지 않으셨다.(이의현, 「어머니 정경부인 영일 정씨 행장」, 7권, 321쪽)

⑤는 박운원 아내의 행장이다. 그 내용을 보면 아내는 몸가짐이 법도에 맞아 나무랄 데 없는 여성이었다. 그런 아내에 대한 최고의 칭송이란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우리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은 박운원의 아내가 다른 부녀자와 달랐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성과 비견될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박운원의 아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당대 사람들의 남녀구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⑥은 이의현의 어머니에 대한 행장의 일부분이다. 어머니 영일 정씨 역시 어려서부터 남달랐는데 여타 어린 아이와 같은 경박함이 없었다고 평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보통의 아이들과 달랐던 영일 정씨는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아가 어른들이 ‘여자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평가받는다.

여성행장에는 이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목사공은 매번 부인이 남자가 아님을 한스럽게 여겼다.”,¹³⁾ “유인은 어려서 성품이 시원하고 초연하여 남자의 기상이 있었다.”,¹⁴⁾ “부인이 남자가 아닌 것을 안타까워하셨다.”¹⁵⁾와 같은 기록은 행장의 대상이 된 여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구별문법에 의해서다.

그렇다면 일반 부녀자들은 어떠했는가. ‘편협하여 관용이 적은 것은 부녀자의 공통된 문제인데’,¹⁶⁾ ‘식견이 있는 부인들이라도 간혹 유행을 벗어나지’¹⁷⁾ 못했다는 등은 행장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는 다른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행장의 대상이 된 여성의 훌륭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부녀자가 행장의 여성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 역시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가능한 데에는 사대부 남성을 비롯한 당대 사람들이 가진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 및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일반적인 부녀자는 성정이 편협하고 속이 좁다. 이 말에는 질투와 시기가 여성의 근원적인 속성임을 내포한다. 식견이 있는 여성이라도 간혹 유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행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여성 중에서는 식견이 있지만 간혹 유행을 벗어나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결국 식견이 있든 없든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성보다 못한 존재라는 저의가 내포되었기에 가능하다.

13) 이희조, 「정경부인 윤씨 행장」, 1권, 241쪽.

14) 김낙행, 「유인 김씨 행록」, 8권, 23~24쪽.

15) 윤광소, 「정경부인 조씨 행장」, 8권, 47~48쪽.

16) 이의현, 「정경부인에 추증된 아내 어씨 행장」, 7권, 331쪽.

17) 오광운, 「어려서 죽은 누이동생의 행장」, 2권, 248쪽.

행장의 여성은 일반 부녀자보다 훌륭하지만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남성이 되지 못한 여성에 다름 아니다. 아들이 아니어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 안타까울 정도라는 것이 여성에게 최고 칭송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혐오가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여성혐오는 여성 스스로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 확실하다.

⑦ 공을 섬기는 30년 동안 조금도 거스른 적이 없었으니, 공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반드시 힘을 다해 이루게 하고 공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감히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을 하늘로 여긴다. 무슨 일이든 나는 오직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하늘을 어길 수 있겠는가?” 공은 본디 성품이 엄하였는데 간혹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공인이 곧 부드럽게 화를 풀어주었고, 공을 경계하여 옛날의 바른 도로 이룸에 군자의 풍모가 있었다. (김성탁, 「공인 김씨의 행록」, 2권, 167쪽)

⑧ 배나 밤 등을 얻을 때마다 큰 것은 번번이 남자 형제들에게 주고 자신은 작은 것을 가지며 말하길, “여자에게 당연하지요.”라고 했다. (중략) 자라면서 더욱 형제들과의 우애가 돈독해져서 그 오라비가 매우 여위고 병치레를 많이 하자, 매진 근심하며 편안히 지내지 못하면서 이르길, “오라비의 병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오라버니는 겨우 세 살에 젖을 떼었기 때문이지요.”라고 했으니, 그 말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박윤원, 「누이 유인 행장」, 6권, 315쪽)

⑦은 밀암(密庵) 이재(李裁)의 부인 공인 김씨 행장의 일부이다. 김씨는 30년 동안 남편을 섬기면서 그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데 남편은 하늘이므로 그 뜻을 따를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행장 속 여성 대부분의 행실이기도 하다. 김씨는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사회에서 윤리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체화한 밑바닥에는 여성혐오 곧 자기비하가 자리한다. 앞서 얘기했듯 여성은 남성이 되지 못한 자이다. 그것은 규범적인 여성일수록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익히 들어왔던 말일 테다. 즉 그 말은 여성에게 칭찬이면

서 동시에 여성으로 하여금 가족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만든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철저히 규범적 언행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이 같은 규범적 언행은 일반 부녀자보다 나으며,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해 안타깝다는 칭송으로 돌아온다. 여성혐오와 자기비하가 칭송으로 이어지는 골레 속에 규범적 여성의 자리가 있다.

⑧은 박윤원의 누이 행장의 일부이다. 누이는 형제들 중에 외동딸로 부모님께 한 번도 야단맞은 적이 없을 정도로 총명하고 유순하며 조용하고 정숙한 아이였다. 그런 누이는 배나 밤 같은 것을 얻으면 큰 것은 남자 형제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를 말하길 “여자애가 당연하지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누이의 대답은 순수해보이지만 단순하지 않다. 우선 누이가 말한 이유는 누이가 앞으로 훌륭한 부녀자로 성장할 근거로 어떤 욕심도 없는 성정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누이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가진 자의식을 보여주는 바, 좋은 것은 남성에게 양보해야 하는 이유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인 것이다. 아픈 오빠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오빠가 아픈 이유가 자신이 태어나는 바람에 오빠가 젖을 일찍 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애가 좋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앞서 이 누이가 했던 말을 미루어 보건데 이 말에는 여자애가 태어나 아들의 젖을 뺏어 먹었다는 여성으로서 자기비하에 기반한 자의식이 깃들어 있다.¹⁸⁾

이렇듯 사회 보편적인 여성혐오와 거기에서 비롯된 여성의 자기비하는 그 정도가 강할수록 남성작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것이 곧 칭송의 대상이 된다. 여성행장을 비롯한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서사는 이러한 아이러니로 반복 재생산된다.

18) 여성의 자기비하 인식은 여성인물전 중 열녀전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남편의 죽음에 대해 ‘박명한 몸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황윤식, 『열부이씨전』, 『願齋遺藁』)라거나 ‘저의 죄로 하늘이 화를 내린 것인데(이용휴, 『열부 유인 한씨전』, 『惠實雜稿』)라고 한다. 이 같은 여성의 언술은 남성-남편의 생명이 여성인 자신의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있다는 인정, 곧 자기비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무표정한 여성의 감정노동

여성행장은 여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통 장르에 비해 주목을 받는다. 물론 여성의 생애는 남성작자에 의해 재단되어 기록된 바, 유교적 윤리규범에 적합한 행실에 한해서 기록되었다. 때문에 여성행장을 읽다보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성행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효행과 집안 살림에 신경쓰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자세, 가난한 살림에도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챙기는 제사, 친족과 공동체를 보살핌, 엄격한 자녀 교육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성행장에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여성행장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성의 감정이다.

⑨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은 가문에 들어온 이후로 삼가 조심하고, 사적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남편이 속으로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인 것처럼 삼가고 피하였고,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몸이 피곤한지, 집안 살림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힘껏 해주었다. 그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아름다운 덕으로 스스로를 세우기를 분명히 바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엮어질 듯했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으며, 또 그 남편에게 잘못이 있으면 충고하여 간하는 것 역시 매우 지극했다. (이간, 「아내 안인 윤씨 행장」, 4권, 330쪽)

⑩ 나와 우리 형수님은 60년을 한집안에서 살았는데, 끝내 화내고 꾸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게으르거나 거리낌없이 함부로 하는 기색을 보인 적도 없었으며, 근심스러운 일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바로 앞에서 빈갈아 일어나도 담담히 대처하시어 끝내 도에 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우리 형수님과 같은 분을 어찌 세상 부인들이 따라올 수 있겠는가?(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76~177쪽)

위의 ㉠에서 이간의 아내 윤씨는 남편을 섬기면서 ‘사적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燕私之意 不形於言笑).’고 했다. 이때 ‘사적인 마음’의 ‘燕私之意’는 ‘평상시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상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의미하는 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여러 여성행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칭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통제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었다. 조선시대 상층 사대부 남성도 감정이란 자유롭게 발산할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통제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사대부 남성의 감정의 절제와 통제는 인격적 수양을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의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학문적 수양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근간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¹⁹⁾

감정의 절제와 통제는 여성에게도 중요한 덕목이었다. 다만 그것이 여성이 학문의 주체로서 이루어낸 수양의 결과라기보다는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감정 절제는 공적인 역할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인격을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었다면 여성의 감정 절제는 철저히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개인성 및 주체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억압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내 윤씨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남편의 뜻대로 움직인다. 윤씨는 개인적인 마음은 없는 상태로 남편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의(義)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엮어질 듯’,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이 같은 태도는 임금과 백성을 위해 복무하는 남성의 공적인 마음과 닮았다. 그러나 여성에게서 보이는 공적인 마음이란 것은 기실 여성 개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생각을

19)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동방학지』 159, 2012.

표현하는 일이다. 결국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여성이 개인적 주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²⁰⁾

⑩은 이덕수의 어머니 행록의 일부인데 어머니가 시집와서 나이 어린 시동생 지사공(知事公)을 보살핀 바, 만년에 지사공이 형수에 대해 이른 부분이다. 내용을 보면, 지사공은 형수와 60년을 함께 살면서 형수가 화를 내거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어떤 일에도 담담히 대처했다고 한다. 지사공이 지켜 본 형수의 평소 태도는 위에서 본 이간의 아내와 비슷하다. 모두 일상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칭송 받는 여성은 행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행장 속 여성은 남편이 최고의 관직에 올랐으나 기뻐하지 않고²¹⁾ 가난하고 군색함에도 근심을 드러내지 않았다.²²⁾ 고생이 심해도 얼굴에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으며²³⁾ 아이 일곱을 낳았다가 여섯을 잃어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²⁴⁾ 이 여성들은 언제나 담담하거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남성작자들의 칭송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행장 속 여성들은 무표정하다. 때문에 우리는 여성행장을 통해 여성들이 해야 했던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행장 속 대부분의 여성은 감정을 은폐 당했다. 물론 여성 스스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을 억누르며 평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은 여성행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행장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남성작자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준

20) 행장 속 여성이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남성작자의 진술이다. 때문에 이것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여성이 전혀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남성작자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감정을 진술 내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작자의 의도적 배제는 여성의 감정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21) 이회조, 「정경부인 윤씨 행장」, 1권, 242쪽.

22) 조귀명, 「선비행장」, 1권, 469쪽.

23) 남유용, 「어머니 행장」, 3권, 315쪽.

24) 남유용, 「망실 공인 기계 유씨 행장」, 1권, 305쪽.

은 명확하다. 남성작자에 의해 재단된 여성의 발화는 유교 윤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행장은 남성작자의 시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여성은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행장에서 여성의 감정 절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규범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남성의 시각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행장은 감정이 은폐된 무표정한 여성이 얼마나 규범적인지 보여준다.²⁵⁾ 즉 감정 절제에 실패한다면 규범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 여성행장은 감정 절제에 성공한 여성의 기록이며 사적인 감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남성작자는 여성의 감정을 은폐한다. 이러한 감정의 절제와 은폐는 다시 여성의 감정노동으로 이어진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감정노동의 현장에는 남성보다는 낮은 직급의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감정노동은 산업화의 결과물만이 아니다. 여성의 감정노동은 가사노동과 병행되었다. 여성의 활동 영역이 가정 안으로 한정되었을 때 여성이 물리적인 가사노동만 한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는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여기에는 ‘부엌일을 주관하는 막중한 책임’²⁷⁾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기를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감정노동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즉 ‘집안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항상 부녀자들에게 달려 있으니, 현명한 아내를 얻는 것은 역시 어렵구나.’²⁸⁾라고 했듯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부엌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현명한 아내’라는 표현에는 남편을 비롯한 모든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 유교적 규범에 알맞은 적절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25) 흑실드(2009, 49쪽)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가 힘들어진다. (중략) 감정은 ‘합리적 사고’를 위한 잠재적 통로다. 게다가 감정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시대 여성이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 가부장들에 의해 감정이 은폐되면서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은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복종이라 부를 만한 결과를 생산하는 감정노동을 한다. 그렇지만 여성은 그런 감정노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엘리 러셀 흑실드 지음,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2009, 214쪽)

27) 유언호, 「부인의 유사」, 2권, 432쪽.

28) 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85쪽.

한편 유교 사회에서 선비란 ‘대인(大人)’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온전한 덕을 밝혀 그것을 통해 백성들도 또한 덕을 자각하도록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르도록 해야 하는 사람-남성이다. 이 대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비는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해야 한다. 이 『대학』의 삼강령·팔조목의 달성은 유교 사회의 선비에게 주어진 일생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따라서 선비에게 주어진 역할은 학문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익을 따지는 것은 소인(小人)이 마음을 쓰는 바이며 선비에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의 가난은 학문하는 선비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비가 성공적으로 ‘大人之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바로 부인이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것이다.²⁹⁾ 나아가 선비로서 제사와 접빈객에 소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여성은 남편의 학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정 경제를 책임짐과 동시에 가정 내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⑫ 집이 몹시 가난했지만 오라버니는 집안경제에 마음을 둔 적이 없었고 올케가 몸소 이를 맡아 집안의 자잘한 일들로 오라버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아침저녁 식사는 또한 반드시 성의를 다하여 마련해서 비록 매우 군색한 상황이라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으니, 남편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알게 하여 호연한 기상에 누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라버니가 젊었을 때 친구들을 따라 놀다가 간혹 술에 취하여 돌아오면, 올케는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음주 후에 마실 것을 마련하여 대접하였으니, 그 밖에 남편을 섬기는 도라는 부녀자의 도의에 조그마한 허물도 없었다. (삼육, 「정경부인에 추증된 어머니 이씨의 유사」, 2권, 178쪽)

⑬ 그 남편은 본래 매우 가난하고 성품은 아주 오활하여 집안일에는 조금도 마음을 써 본 일이 없었다. 선조를 제사하고 어른을 받들며 집안을 건사하는 온갖 일들을 안인은 실로 혼자서 담당했는데, 의지와 힘을 다하느라 밤낮으로 힘들어 초췌해

29) 최기숙(2014, 8쪽)은 여성의 노동과 빈곤 관리는 청렴과 안빈낙도라는 사대부 교양을 지탱하는 현실적,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고 했다.

저 고생이 극에 달해 어쩌다 걱정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실로 자잘한 집안일과 잡다한 세상살이로 남편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지 않아서 매번 남편의 얼굴을 살펴 걱정하는 기색이 있으면 곧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있고 없음과 주리고 배부름은 오직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간, 「아내 안인 윤씨 행장」, 4권, 324쪽)

여성행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가난’에 대한 것이다. 조선 시대 선비의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비의 청렴함, 선비의 학문에 대한 지고한 순결성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은 것이었다. 때문에 여성행장에서 남성은 집안 경제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기록되는데 이는 여성행장의 관용적 표현이자 남성 자신 및 가족 남성의 선비적 자세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가정경제는 오롯이 여성의 몫이 된다.

여성은 남성을 대신해 가정의 실물 경제를 책임져야 했는데 여성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⑫는 심육의 어머니 이씨의 유사인데, 심육의 고모가 어머니 이씨인 올케에 대해 기록하여 전해준 부분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 여성은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이 가난을 남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군색한 티를 내어 남편의 호연한 기상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또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음주 후에 마실 것을 마련하여 속을 달래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씨의 직접적인 발화는 없다. 그러나 이씨가 별다른 불평없이 오히려 남편의 호연한 기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을 보고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실 것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모의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으로서의 이심전심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⑬에서 이간의 부인도 고생이 극에 달할 정도로 집안 경제를 혼자 담당했다. 그런데 이간의 부인은 ‘어쩌다 걱정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으나 그것이 어떤 말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가난한 살림에 때마다 선조의

제사를 정성껏 마련해야 했을 윤씨의 고생을 짐작한다면 윤씨가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지만 남편 이간은 그 말을 지워버렸다.³⁰⁾ 대신 자신의 고생은 뒤로하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 걱정하는 기색이 있으면 집안 살림의 있고 없음은 윤씨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 위로의 말을 기록했다. 기록의 여부는 남성작자의 입장에서 행장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에 따른 마땅한 처사였겠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여성이 했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감정노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감정 중 여성에게 특히 금지되었던 것이 투기(妬忌)였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이기도 한 투기는 축첩제도가 있는 조선에서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감정이었다. 송시열은 『계녀서』의 ‘남편을 섬기는 도리’에서 “여자가 남편을 섬기는 일 중에서 투기를 아니하는 것이 으뜸되는 행실이니, 일백 명의 첩을 두어도 본체만체 하고, 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노여워하는 기색을 두지 말고 더욱 공경하여라.”³¹⁾ 당부한다. 송시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기하지 말아야 하는 도리’장에서 ‘투기라는 것은 부인의 제일가는 악행이므로’³²⁾ 따로 장을 마련하여 재차 쓴다고 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여성의 투기하는 감정에 대한 관리가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보여준다. 여성행장에도 첩을 대하는 여성의 바람직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⑭ 내게 첩이 하나 있어 한 집 안에 두었는데, 부인이 일찍이 그를 잘 봐서 데려다 곁에 두고 일을 시켰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성으로 타이르고 가르치며 온화한 기운을 잃지 않았다. 다른 부인들이 간혹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고 충고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문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투기하는 것은 나쁜 습성이니, 나는 이를 수치로 여기네.”(조관빈, 「아내 정부인 창원 유씨의 행장」, 2권, 301쪽)

30) 최기숙(2014, 23-24쪽)은 이간이 부인이 탄식함을 구태여 기록한 것은 가난에 시달리는 아내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고생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나 뒤이어 이간이 부인이 한 위로의 말은 직접 인용하고 있는 데에서 앞서 했을 부인의 탄식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지웠을 것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31) 소혜왕후 한씨·송시열 지음, 김종권 역주, 『내훈·계녀서』, 명문당, 1986, 201쪽.

32) 위의 책, 209쪽.

⑭는 조관빈이 기록한 부인 창원 유씨의 행장 부분이다. 조관빈에게는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첩이 있었다. 이렇게 한 집에서 부인과 첩이 함께 사는 경우 첩은 부인의 관리대상이 된다. 남편이 첩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조선 시대 신분제에서 처첩간의 위계는 확실했다. 본처는 가정의 관리자로서 살림 경제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친족을 비롯하여 남편의 첩까지도 관리해야 했다. 남편의 첩과 한 집안에 살면서 유씨는 ‘온화한 기운을 잃지 않’으며 첩을 곁에 둔다. 그리고 스스로 투기하는 마음을 경계하며 집안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언행이 유씨의 솔직한 감정의 발로였을까.³³⁾ 분명한 것은 유씨를 향한 ‘다른 부인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너무 무심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남편의 첩과 한집에 살면서 투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심해 보일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남편의 제가(齊家)를 위한 상층 여성의 감정노동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강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여성의 감정노동은 철저하게 감정을 숨김으로써 완성된다.

여성행장은 남성에 의해 작성되었다. 작자들은 행장이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별구별이 엄격하며 생활공간³⁴⁾마저 구분되어 있던 사회에서 남성작자가 여성의 실제 삶과 솔직한 감정을 기록하는

33) 우리 문화에서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돌보는 업무를 전통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짓 자아를 지나치게 발달시키고 그 경계를 농칠 위험이 더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자아도취적 거짓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이 남성에게 더 큰 위험이라면, 이타주의적 거짓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은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 (중략) 이타주의자는 상대적으로 이용당하기 쉽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의식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집단과 그 집단의 복지에 더욱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엘리 러셀 흑실드 지음,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2011, 246 쪽) 흑실드가 설명하는 이타주의적 거짓자아는 조선시대 여성, 특히 행장의 대상이 된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여성행장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의 ‘진정한 자아’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34) 김경미는 18세기는 유교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된 시기로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7세기 후반 들어 사랑채가 확장되는 한편, 가족구조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규방은 더욱 ‘깊은’ 공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김경미, 『家和 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2012, 233쪽) 이 설명에 따르면 폐쇄적 가족구조는 여성의 활동영역을 한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남편 및 다른 가족들과의 감정적 교류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써 어린 자식이 먼저 죽은 여성에 대해서 그 슬픔을 공감하거나 슬픔에 빠진 여성의 상태 및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상층 여성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은 것에 더해 남녀 생활공간의 분리로 남성에게 여성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여성의 감정은 언제나 절제되어 있으며 행장 속 여성은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는다.³⁵⁾ 즉 가문의 유지와 가정의 평온을 위한 감정노동은 감정의 절제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감정을 ‘행위의 원형’, ‘하려다 만 행위’³⁶⁾로 본다면 조선후기 여성의 자발적 감정절제는 자신을 끊임없이 매순간 단속하는 행위이며, 행위의 단속 이면에 감추고 있는 감정, 하지 못한 행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4.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서사의 의의

본고는 19세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기록된 18세기 여성행장을 통해 여성서사를 살펴보았다. 여성행장은 여성서사지만 대부분 남성작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때문에 행장의 대상과 내용은 남성의 취사선택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여성행장의 내용은 가부장사회의 남성적 시각과 인식이 반영된 여성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행장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행장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여성의 자기서사가 거의 없다면 한 상황에서 행장은 그 내용의 사실성과 풍부함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여성의 삶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가부장사회에서 남성작자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된 여성행장을 기록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행장의 시작이나 끝 부분에는 “지금 뽑아 기록한 것은 다만 보고 들은 것이니 만일 넘치거나 사실에 지나친 것이 있다면 또한 내가

35) 황윤정(2014, 573-576쪽)은 행장 속 여성을 ‘갈등 없는 여성’이라고 했다. 갈등이 없는 여성은 가문 여성으로 호명된 자로서의 응답이며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은 모습으로써 독자들에게 조화로운 가문 질서를 내면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행장 속 여성의 외부 관계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도 전혀 알 수 없는 행장의 기록을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서사가 가진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36) 엘리 러셀 홀실드(위의 책, 284쪽)는 다윈이 감정을 행위에 관한 지향과 연결하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설명한다. 다윈은 감정을 행위의 원형(protoaction)으로, 행위 대신 또는 행위 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 하려다 만 행위로 정의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조선시대 여성의 감정통제는 여성 자신의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히 병스럽게 여길 것이다.”³⁷⁾라거나 “지금 이 작은 기록에는 단 한 마디도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³⁸⁾는 등 행장 내용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반면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는 일찍이 근래의 비지문을 읽고 그 부인의 덕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병통이 있다³⁹⁾고 했다. 이렇게 보면 행장의 과장됨은 기록자와 독자 사이에 어느 정도 용인된 부분이며 사실성을 강조하는 남성작자들의 표현은 행장 글쓰기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행장의 내용이 과장·미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행장 속 여성의 삶을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 박혜숙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주변적 존재임을 면하기 어려운 여성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성 특유의 허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⁴⁰⁾고 했다. 필자는 이 ‘여성 특유의 허구’가 자기서사에서 뿐 아니라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서사에서도 발휘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남성 특유의 허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특유의 허구’가 여성이 가부장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가장(假裝)함으로써 허구적 삶을 살아가는 것⁴¹⁾이라면 ‘남성 특유의 허구’란 자신의 친족 및 지인 여성을 완벽한 규범적 여성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록의 가장(假裝)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성행장에서 남성작자의 기록의 가장을 감안하면 가부장사회의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반면 기록의 가장을 배제하면 실제에 가까운 여성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세기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행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성작자의 칭송 속에 가려진 고단한 여성 삶의 단면일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의 자기서사에서도 ‘여성 특유의 허구’가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지적했듯이 남성작자에 의한 여성행장에서도 여성의 실제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37) 권두경,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 1권, 206쪽.

38) 권만, 「영인 풍양 조씨의 행록」, 2권, 202쪽.

39) 記得大夫人嘗閱近代諱誌, 病其稱婦德太過曰.(김만중, 「先妣貞敬夫人行狀」)

40) 박혜숙, 「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119쪽.

41) 위의 책, 119쪽.

아니다. ‘남성 특유의 허구’를 감안하더라도 여성행장을 관습적 기록으로만 볼 수 없다. 칭송으로 이루어진 여성행장은 구별문법의 토대 위에서 기록되었으며 그 구별문법에는 남성의 여성혐오와 여성의 자기비하가 내재되어 있었다. 여성행장은 규범적인 언행으로 직조된 삶 속에서 무표정한 채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의 서사였다. 우리는 이제 칭송 이면에 감춰진 행장 속 여성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여성행장을 여성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서사로만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낀다. 지금은 젠더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지만 시대가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18세기 여성행장은 비록 남성이 되지 못했지만 어떤 양반남성보다 훌륭한 덕을 갖춘 여성-인간의 기록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는 남성작자의 칭송과 궤를 달리한다. 유교적 규범과 남성의 시각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여성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여성-인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18세기 여성행장은 허락되었던 것보다 허락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던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던 여성-인간의 서사로서 의의가 있다. 여성행장은 가부장사회의 구별문법을 토대로 하지 않아도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인간의 서사로도 읽을 수 있다.

본고는 18세기 여성행장에 한하여 여성서사의 특징을 연구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후 여성의 자기서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18세기 전후의 여성행장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자기서사 및 근대 여성의 생애서술·구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한국 여성서사를 통해 한국사회 안에서의 여성 삶의 본질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황수연 외,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 보고서, 2010.
- 소혜왕후 한씨 · 송시열 지음, 김종권 역주, 『내훈 · 계녀서』, 명문당, 1986.
- 김경미, 『家와 여성』, 여이연, 2012.
- 박혜숙, 「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 거더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 우에노 치즈코 지음, 나일등 옮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5.
- 앨리 러셀 훅실드 지음,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2011.
- 박혜숙,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 이경하, 「亡室行狀類 연구」, 『한국문화』 40, 2007.
- _____, 「상층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학회, 2018.
-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1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03.
- 조성윤 · 김승호, 「여성을 주체적으로 회상한 행장(行狀)의 애도 내용 고찰」,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20.
-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동방학지』 15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 _____,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 한희숙, 「조선후기 兩班女性的 생활과 여성리더십 - 17세기 행장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9, 한국여성사학회, 2008.
- 황수연, 「어머니 행장(先妣行狀) 연구 - 母자의 인정 행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 황윤정, 「기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 - 김만중의 <先妣貞敬夫人行狀>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Women's Narrative Seen through Women's Heng'jang(行狀) in the 18th Century

Lee SeungHee*

This paper understands women's lives through women's narratives in the 18th century. And it aims to grasp the reality of women's lives hidden in the praise of male writers. Women's narratives were written by men. For this reason, female narratives actively reflect the views of male writers in the Joseon Dynasty.

The male writer emphasizes that the women in the heng'jang(行狀) are different from the ordinary women. Here, the universal misogyny perception of the Joseon Dynasty is revealed. Misogyny leads to self-deprecation that one was not born as a man. Self-deprecation again becomes the object of male praise.

On the other hand, women's narratives record women's lives, but women's emotions are unknown. Women restrain their emotions and do emotional labor. Women don't say it's hard even if they suffer. A woman is not jealous of her husband's concubines. Male praise covers up female emotional labor.

Women could not be the subjects of records. So she couldn't be the subject of her own life. The haengjang(行狀) shows it.

Key words: Heng'jang(行狀), Women's narrative, Confucianism Ideology, Distinction, Misogyny, Emotional Labor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11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26일

* Inha University

